

속아 내기

글 그림 이혜빈



[교실 속 그림책] 슈아내기

2016년 11월 19일 초판발행 2016-00005

| 지은이 | 이해빈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7790-04-4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이해빈과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추천의 말

실과 수업 시간에도 자신만의 눈으로 사회 현상과 삶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어린 이작가 이해빈의 시선에 감탄했다. 헤빈이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새싹은 강한 새싹들에게 밀려 속아 내어져 버릴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새싹이다. 그 소심한 새싹들이 뽑히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며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을 이 교실, 이 사회 구석 구석에 마음이 한참을 머물렀다.

'식물은 속아내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작가 이해빈의 바람에 마음을 보탠다.

작가 소개

어린이작가 이혜빈은 2016년 올해로 13살, 서울홍릉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으로 여러 세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의 재주가 있어 만들기도 좋아합니다.

혜빈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흙탕물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을 꼭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말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새싹입니다. 자신이 뽑힐 까봐 걱정하는 소심한 새싹입니다. 6학년 1학기 실과 '생활 속의 식물 가꾸기' 시간에 '숙아내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싹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미리 뽑아낸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은 새싹이라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찍부터 뽑혀져 나가는 새싹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숙아내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금 사회의 문제점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강한 새싹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약한 새싹들을 뽑아내는 것이 뉴스에서 보았던 입시 경쟁 문제, 구조조정 문제를 떠올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작은 새싹들, 구조조정으로 떨어지는 작은 새싹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어린이들도 이 새싹처럼 자신이 뽑혀져 버릴 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좀더 힘내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식물은 숙아내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6

실과 6-1

‘속아내기’



01

생활 속의 식물 가꾸기



3 씨앗이 드러나지 않도록 심실 물을 뿌리며 흠뻑 줍니다.



4 씨앗 푼으면 한 구멍에 튼튼한 씨 1개만 남기고 속아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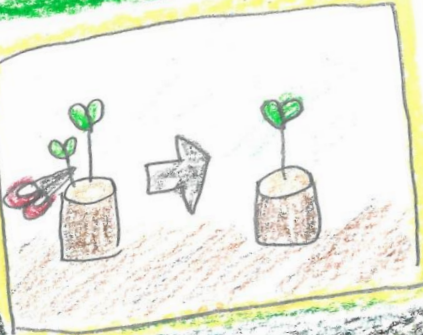
실과 시간에 ‘속아내기’에 대해서 배웠다.

?

*숙아주기

튼튼한 작물이 더 잘 자라도록 약한 작물을 숙아 내는 일.

숙아내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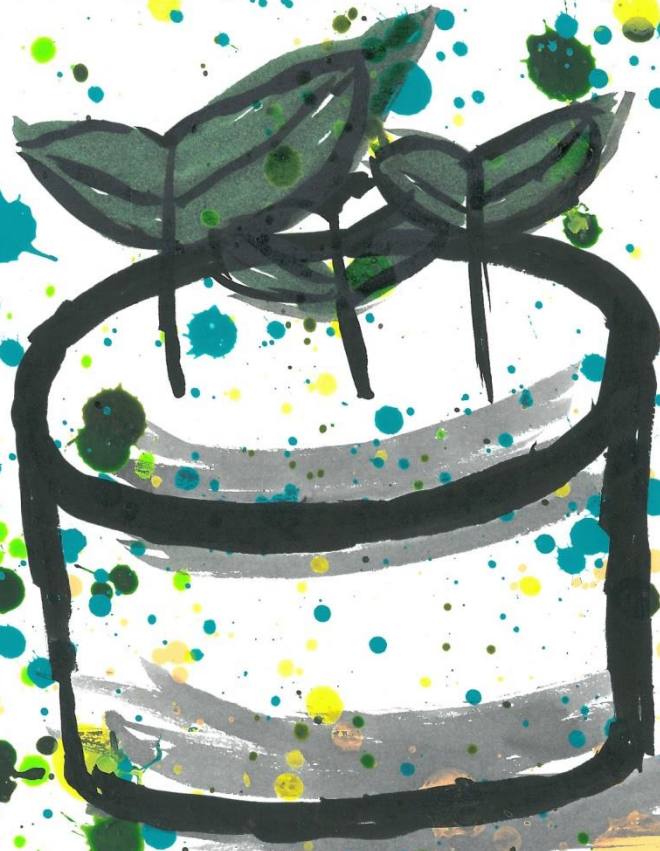
4 싹이 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숙아주기를 합니다.

튼튼한 작물이 더 잘 자라도록
약한 작물을 숙아내는 일.

※ 숙아내기란?

튼튼한 작물이 더 잘 자라도록
약한 작물을 숙아내는 일

강하고 큰 새싹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작고
약한
새싹들을

뽑아낸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문득,

‘우리 사회도 이 쇼아내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에서

쫓아 내어진 사람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 회사

가장
○○

○○○



일 자리를 얻어도

썩어나어 지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새싹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큰 새싹들을 위해
쑥아내어 지는 게 억울해.
나중에 누가 더 클지 어떻게 알고?”

작다고 미리
쇼아내는 게
어떻게 해!

사탕 사탕





속아 내어져 뽐히는 작고 약한 새싹처럼

뽐아 내어진 사람들은

슬프다.



큰 새싹을 위해
그냥 뽑히기는 싫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뽑아내어 버리다니...



식물은 숨아내기로 약한 새싹을 뽑아내지만



사람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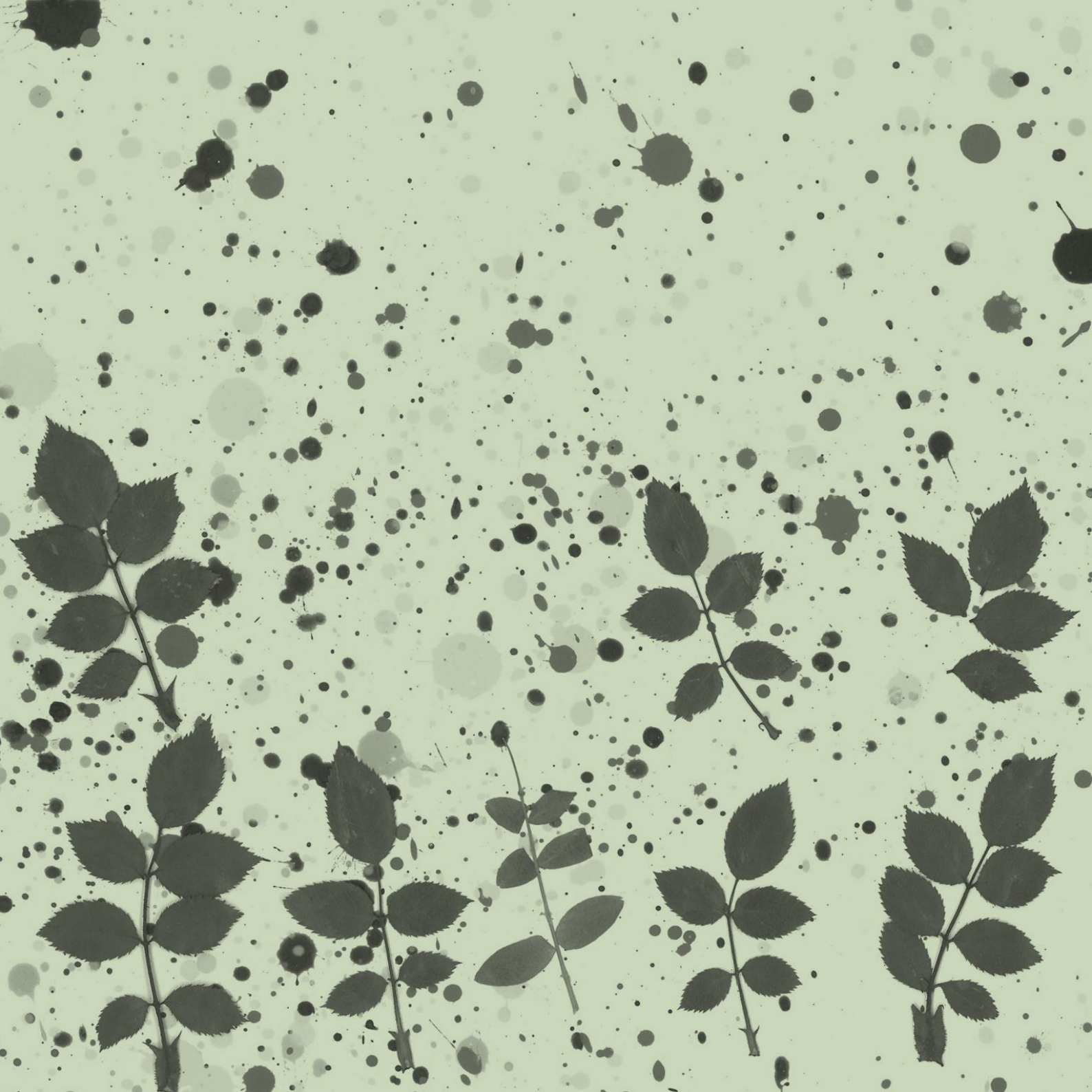
뽕혀져 버릴 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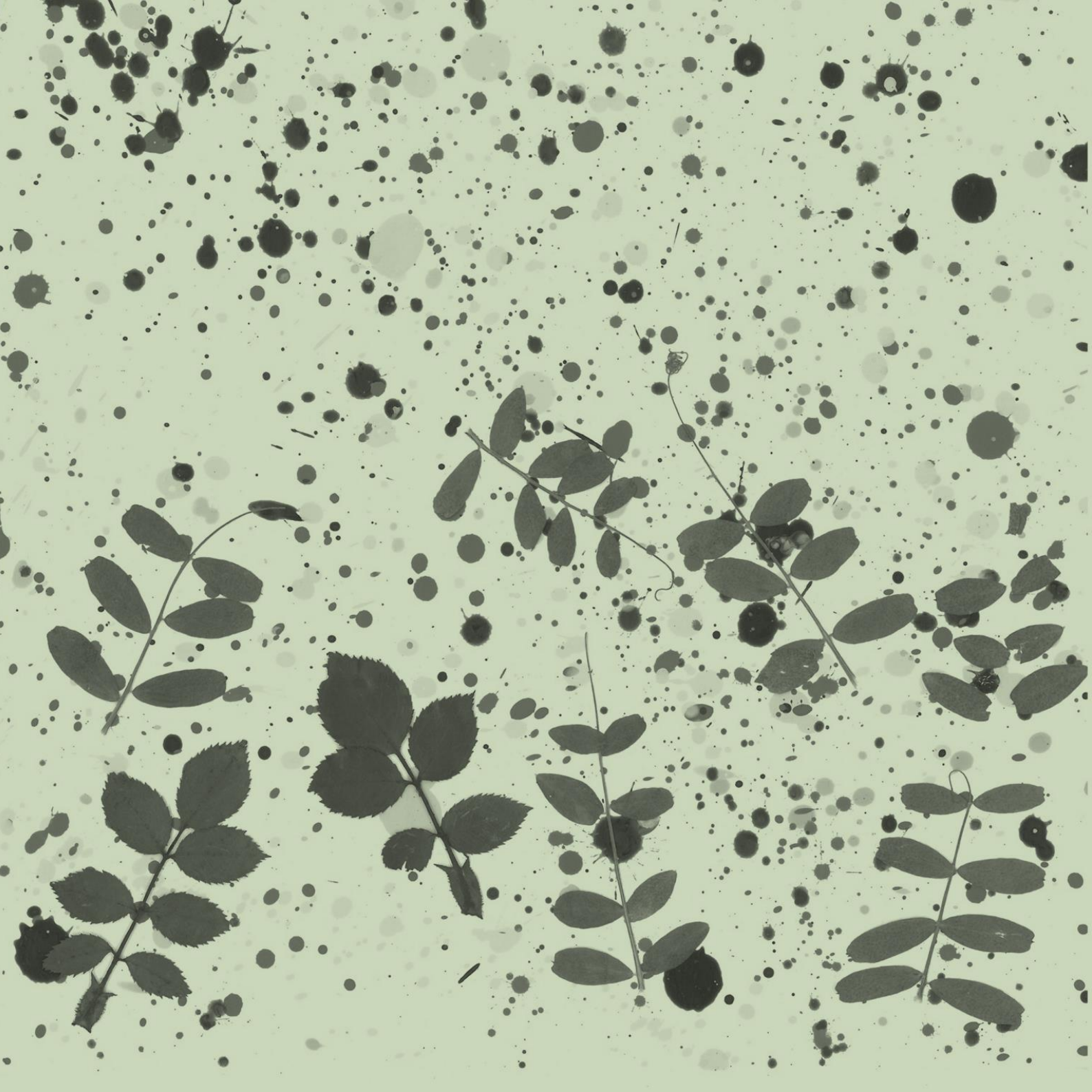
불안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아,



우리 좀더 힘내자!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슈아내기 [전자자료] / 지은이: 이혜빈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6

전자책 책

ISBN 979-11-87790-04-4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6022904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07088)



비매품

75810



9 791195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